

2022년 「장애의 재해석」 논문경진대회 연구계획서

- ※ 연구계획서는 본 서식을 활용하여 **1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개조식 또는 서술식) 요망
- ※ 연구팀 선정에 따른 최종논문 제출(2022년 9월 예정) 분량은 A4 25매~30매 내외임을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람

연구 제목

2030세대의 대물림된 장애 혐오에 대한 Apologia :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성에 대한 문학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021년 겨울에서 2022년 봄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다른 모든 인권 시위와 비교하면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법적인 대처의 문제점을 떠나 인터넷 댓글은 어느 정치인의 “통찰력”있는 한마디에 동조하며 시위가 벌어진 장소,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불편했다.” 20·30 청년들(특히 인터넷상의)이 이러한 목소리의 주체라 여기며,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 시위의 문제보다 이 요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특히 “공정과 상식”의 실현을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필자들은 2030세대의 일부로서 인권의 문제가 불편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을 보면서 쉽게 동조했던 청년들과 별다름이 없다. 그러나 등하교를 위해 매일 세 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는 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시민”과 “불편한 우리”에는 포함과 배제의 원칙이 작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출퇴근 시간의 직장인, 학생, 생계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만 포함시키고,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 환자, 임부, 장애인등은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을 관찰한 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관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전장연 시위의 목적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촉구” 였던 것이 무색하게, 2030세대는 시위 자체의 본의에 대해 숙고하기보다 그에 대한 혐오 감정만을 표출하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검토이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왜 오늘날의 2030 세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이며, 본 연구는 제목 apologia가 자기 성찰을 곁들인 개인 의견에 대한 옹호를 뜻하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성찰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이 될 것이다. 필자들은 오늘날 2030 청년들의 혐오의 원인이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차별적 선입견과 구조의 고착화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현재의 혐오에 2030 세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견이나, “기성세

대로부터 내려온 차별적 전통”에 필자들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2030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물려준 혐오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치가의, 혹은 어느 기성세대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혐오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혐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 세대 내에서 개별적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혐오의 원인을 뿌리뽑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혐오 중 장애라는 영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본고의 논의와 통찰을 통해 오늘날 다른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혐오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 또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유의미한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 속에 자리 잡은 일상화된 구조적 억압”에 대해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문헌텍스트, 『어둠의 속도』, 『SCP 재단』, 『아몬드』의 분석을 통해 장애를 타자화하거나 배제하는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 필자들은 제기된 주제에 관해 세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둘째로 ‘장애의 그릇된 규정으로부터 오는 악영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장애를 규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총체적 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위의 세 논점을 본고에서는 특수한 개념어를 사용해 통칭하려 하는데, 첫째 논점부터 각각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성’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일상성은 그릇된 사회구성적 장애의 개념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 대중이 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탈정체성은 ‘장애’상태를 ‘비장애’상태로 수정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위의 두 개념은 탈장애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탈장애란 장애는 사회가 개인에게 씌운 프레임일 뿐이지, 한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담은 개념어이다. 본고에서는 탈장애를 최종적 이상으로 삼아, 이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말하는 장애와 장애이론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이슈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 이론가는 사회적 장애모델을 제시한 마이클 올리버, 구성주의적인 몸의 사회학을 비판하며 실재적인 물질적 몸을 복권시키려는 사이먼 윌리엄스와 질리언 벤델로 등이 있다. 90년대는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의 연구가 가장 눈에 띄는데, 그녀는 『보통이 아닌 몸』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상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20), 장애의 “재현들이 억압적인 동시에 해방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자아와 타자, ‘정상인’과 그로부터의 일탈 같은 단순한 이분법을 복잡화하려 한다”(21). 그녀는 더 나아가 “‘정상인’이 하나의 장애가 다른 특

성들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해 복합적인 사람을 단 하나의 특성으로 축소시키는 일”을 비판한다 (28).

2000년 들어 영국의 사회과학자이자 장애 활동가인 톰 셰익스피어는 『장애학의 쟁점』에서 “사회모델은 장애에 대한 유일한 진보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26)하는 동시에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중 많은 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점”(27)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최근 연구에서 장애에 철학적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리스트야나 크리스티안센, 시모 베마스, 톰 셰익스피어 등이 편집한 『철학, 장애를 논하다』에서 저자들은 “형이상학이나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의 견지에서 장애를 분석하는데에 초점을 맞춘다”(19). 또한 셸리 트레마인이 엮은 『푸코와 장애의 통치』에서 저자들은 미셸 푸코의 저작을 통해 “장애를 생산하고 규제하는 권력 지식 네트워크는 또한 비장애, 건강, 정상성을 생성하고 규제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앙리-자크 스티케는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에서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에 대해 행해진 “사회적 방식들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한다(40).

이어서 본고에서는 문학텍스트 분석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기에, 국내 연구자들이 문학에 나타난 장애에 대해 집필한 논문들도 검토하였다. 장애주제연구는 2000년에 들어 그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선희와 이승희는 그들의 논문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 1980년부터 2007년까지를 중심으로」(2008)에서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문학 속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 장애 원인, 직업, 교육 정도를 조사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차희정은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2012)에서 “장애인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장애’ 인식 양상을 살펴”본다. 김세령은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 김미선의 소설을 중심으로」(2015)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김미선 작가의 소설 속에 나타난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경향을 탐구한다. 박성애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2018)에서 “2000년대의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여 아동과 장애아동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성인작가의 윤리와 전복의 상상력을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탐색”한다 (323). 박성애와 윤상용은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에서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등의 청소년 소설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의 발현과 양상을 탐구한다. 김민령은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에서 SF 작품속의 포스트휴먼적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장애를 재현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지 탐구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고에서 채택한 방법론은 ‘장애’를 둘러싼 여러 논점들에 대한 필자들의 호기심을 문학텍스트를 이용해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필자들은 논의를 원론적으로 전개할 시 주제가 사변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현실적 문제의 탐구에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문학텍스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장애에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일상성’을 혁파하기 위해서도 문학텍스트의 분석이 요구된다.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의 일부는 이미 너무나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려 사회가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본고에서 문학텍스트의 분석은 일상성에 의해 감추어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미타브 고시는 그의 저서 『대혼란의 시대』에서 문학이 가지는 특수한 힘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¹⁾ 즉, 문학은 특정한 상황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려낸다. 문학으로써 쓰인 순간, 그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현실 상황을 문학에 담음으로써, 현실을 주관적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문학은 현실 세계에서 비가시적이었던 문제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의식의 함양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문학텍스트를 분석할 것인데, 공동 창작 웹사이트의 작가들의 공동창작소설인 『SCP 재단』, 엘리자베스 문의 SF 『어둠의 속도』, 손원평의 청소년 소설 『아몬드』가 그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할 세 권의 문학텍스트는 각각 다른 장르에 속하면서, 동시에 장애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본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된 세 가지 탐구 영역들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SCP 재단』을 통해서는 ‘정상성’의 사회적 구성과 장애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일상성’에 의해 가려지는지 보일 것이며, 『어둠의 속도』를 분석함으로써 일상화된 폭력이 사회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억압으로, 즉 ‘탈정체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탈장애’를 모색하며, 장애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세 가지의 문학텍스트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이어 가겠다. 첫째로 『SCP 재단』은 인터넷 위키 사이트로서, 초자연적인 물체, 현상, 생물 등을 뜻하는 SCP와, 이 SCP를 다루는 SCP 재단을 주제로 한 창작물을 다루는 위키이다.²⁾ 『SCP 재단』의 문서 중 본고에서 다루게 될 문서는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으로, 이는 SCP 재단 내에서 ‘정상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문서로서 ‘일상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 단계에서 분석될 문학텍스트이다.

『어둠의 속도』는 미국 소설가 엘리자베스 문의 장편소설로, 천재적 자폐인 루 애런데일

1) 아미타브 고시,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170p.

2) https://ko.wikipedia.org/wiki/SCP_%EC%9E%AC%EB%8B%A8

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특히 강요된 ‘정상화 수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아 전개되는 소설이다. 『어둠의 속도』가 다루고 있는 ‘정상화 수술’이란 개인의 정체성을 수정하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해당 소설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탈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다룰 때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아몬드』는 국내 소설가 손원평의 장편소설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여 ‘괴물’로 여겨지는 주인공 ‘선운재’와 그에게 감정을 가르쳐 평범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반대로 ‘정상적’ 기반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뒤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려는 ‘곤이’와 운재에게 처음으로 감정 비슷한 것을 불러일으킨 ‘도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당 소설의 주인공 ‘선운재’와 ‘곤이’는 모두 ‘정상이면서 비정상인’, 혹은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비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필자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 일반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탈장애’를 발견한다.

3. 연구내용

연구 계획에서 드러났듯이, 본고에서는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사회 속에 자리잡은 일상화된 구조적 억압’에 의해 촉발된 2030세대의 혐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3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구성은 3가지의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3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그 방법을 제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SCP 재단』에서 드러나는 일상성의 폭력

첫째로,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 ‘일상성’ 개념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정상은 ‘정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한다. 정상성은 철저히 ‘합의 현실’이며,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모두 누군가가 정해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과 같은 타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일상화시킴으로써 이를 ‘일상성’이란 이름 뒤에 은폐한다. 필자는 공동작업 도시 판타지 (urban fantasy) 창작 웹사이트 『SCP 재단』과 그중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 에피소드에 나타난 정상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SCP 재단은 초현실적인 생물, 인간, 사물, 현상을 확보(Secure), 격리(Contain), 보호(Protect)하는 가상의 단체로, 이를 주제로 여러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소설을 투고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름이기도 하다. 재단이 격리하는 각각의 대상(개체)을 SCP라고 부르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SCP - 001이다. 001은 주로 재단의 기원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개체들로, 그 진짜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제안’들 속에

진짜가 숨겨져 있다는 설정이다.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은, SCP 재단이 격리하는 개체들을 결정하는 기준인 ‘정상성’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문서에서 ‘정상성’은 합의된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상성이라 규정하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여준다. 문서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정상이라 부른다.

재단은 음지에서, 주류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미지의 위치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격리하며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속시킨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차별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이들을 격리하고, 차별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SCP 재단이 행하는 것처럼, 규정의 과정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차별화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에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것은 ‘일상성’이란 이름을 얻었다.

『SCP 재단』을 통해 필자는 비가시적인 폭력의 존재를 지목하고, 현실을 보여주려 한다. SCP 재단은 현실을 재현한다. SCP의 텍스트는 사실을 ‘보여지는 대로’만 재현하기에 좀 더 날카로울 수 있다. 자세히 말해, SCP 재단의 문서의 경우 마찬가지로 현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저자들이 상황을 보여주고 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이 더욱 날카롭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역설적으로 폭력의 가시화를 성취한다.

현재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비가시적이다. 특별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의 폭력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SCP 재단』이 숨겨진,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재현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 일상성의 뒤에 가려진 현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2) 『어둠의 속도』: 정상화라는 허구

둘째로 이에 이어, 일상성에 숨겨진 ‘장애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가 가하는 폭력의 모습, 즉 ‘탈정체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를 중심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장애인의 정체성과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회의 태도, 그리고 수정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가 취하는 전략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성을 현 사회에 적용하여 성찰함으로써 비가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지적하려 한다.

『어둠의 속도』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Science Fiction)소설로, 천재적 자폐인 ‘루 애런데일’과 그에게 강요되는 ‘정상화 수술’이라는 두 요소를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개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해, 본고에서는 ‘루 애런데일’로 대표되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정상화 수술’, 즉 ‘정체성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해명하고, 이후 그것이 강요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판할 것이

다.

‘정상화 수술’이 표상하는 ‘수정’의 의미에 대해서 본고는 집중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사회는 장애 상태를 비장애 상태로 수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수정Correction’과 ‘향상Improvement’의 의미를 구분할 것이다. ‘향상’은 기존의 개인을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수정’은 기존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정체성의 토대를 놓는 일이다. 수정은 정체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점에서 폭력적임에 분명하다. 이어 필자는 현재 사회가 강요하는 것은 향상이 아닌 수정임을 밝히고, 그러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본고는 사회가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과 그것이 장애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여러 소설 중 『어둠의 속도』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소설이 보여주는 억압의 양상 때문이다. 주인공 ‘루 애런데일’에게 사회는 ‘경제적 억압’을 통해 정상화 수술을 강요한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속한 사회집단은 장애인을 경제 활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그들의 삶의 지속을 어렵게 만든 뒤, ‘정상성’으로의 진입을 강제하여 장애인의 정체성을 억압하며 사회를 획일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정치적, 의료적(본질적) 영역 등 여타 영역에서의 억압에 비해, 경제적 영역에서의 억압은 보다 삶에 직결된 억압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한 강제성을 가지며 또한 폭력의 양상을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억압의 형태이다. 따라서 본고가 견지하고자 하는 목적인 ‘일상성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소설 중에서도 경제적 억압을 다루는 『어둠의 속도』를 선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최종적으로 비가시적인 폭력성 안에서 장애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려 한다.

(3) 『아몬드』가 보여준 탈장애의 전복성과 연대

마지막으로, 논의의 최종적 결론, 즉 어떻게 위의 논의들을 통해 도출된 문제상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몬드』를 통해 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사회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인식 관련 수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과 정책 또한 장애인 차별을 조장할 잠재성이 있는 방향보다 불편함이나 잘못된 조건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향해가고 있음이 분명하며, 대중의 개선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감정적 싸움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 이후, 그러한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2030 세대와 전장연의 무의미한 감정소모만 거세지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는 기성세대에서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현세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2030세대와 장애인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본다. 여기서 ‘그릇된 인식’이란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이분법 속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한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의 틀안에 규정하는 사회가 구조화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로부터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부터 이어진 그 관습을 고치기는 커녕 우리는 갈등과 분쟁으로 악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이 ‘비정상’으로 규정된 개인에게 어떻게 현시되는지 소설 <아몬드>를 통해 분석하였다. 필자는 아몬드의 주요 인물과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관점을 종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나아가려는 수정형 인물, 비정상성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낙인 찍힌 것에 체념해 비정상성으로 나아가려는 포기형 인물,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틀을 파괴하는 개혁형 인물이 있었다. 작가는 이 세 유형의 인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정상을 곧 장애의 본질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인간’ 자체로 보지 못하고 항상 장애인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현 사회에 대한 문제적 시선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아몬드』의 저자가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연대가 필요함을 암시하였다고 바라보았고, 연대의 근원을 ‘탈장애의 인식’에서 찾는 것으로 결론지으려 한다.

4. 기대효과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를 주제로 다룬 인문학 연구결과물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최근에 동력을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문제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무)관심을 탐구하는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이 확장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30 청년들의 혐오의 기원을 기성세대가 그간 구축한 문화체계 속에서 찾으며, 보다 구체적인 탐구를 위해 문화의 영역인 문학텍스트 분석을 주 연구내용으로 채택하였다. 『SCP 재단』, 『어둠의 속도』, 『아몬드』 연구를 통해 일상에 내재되어 비가시화를 이뤄온 장애인 혐오의 전통을 밖으로 드러내고,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적 구분을 탈피하여 인간범주로 이동하는 방식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이 탈장애 인간 정의와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이 현대 국내외 장애학 연구에서 논의되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주체적 결정권문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문학연구에서 장애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는데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5. 참고문헌

-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학논총』 79 (2018): 5-33.
- 김민령.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9 (2021): 269-299.

- 김세령.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현대소설연구』 52 (2015): 217-255.
-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 박성애.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2 (2018): 323-350.
- 박성애.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 -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2020): 339-362.
- 베데니트 잉스타, 수잔 레이놀스 휘테,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그린비, 2019.
- 손원평, 『아몬드』, 창비, 2017.
- 셀리 트레마인, 『푸코와 장애의 통치』, 그린비, 2020.
- 심귀연.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논총』 97.3 (2019): 169-186.
- 엘리자베스 문, 『어둠의 속도』, 푸른숲, 2021.
- 앙리-자크 스티케,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 그린비, 2021.
- 최선희, 이승희.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3 (2008): 101-120.
- 차희정.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2 (2012): 331-356.
- 톰 셰익스피어, 『장애학의 쟁점』, 학지사, 2013.
- 크리스티아나 크리스티안센 외, 『철학, 장애를 논하다』, 그린비, 2020.
- Meiden, “SCP 재단”, SCP-001 WSJ의 제안, 2021.06.11, <http://ko.scp-wiki.net/wjs-proposal>. 2022. 07. 24